

중국 청도(靑島), 그 땅에서 물류를 말한다.

제2회 韓 · 中 · 日 물류교류회 참가 보고서



한국과렛트폴 마케팅실
해외영업팀 사원 김희수

기내 창 밖으로 정렬된 논과 밭, 그리고 공장 같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중국 청도 류팅(流亭)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99년 여름에 중국 정부 초청으로 처음 방문했었고, 이번이 청도와 의 두 번째 만남이다. 그 때의 청도는 해변가에 늘어선 붉은 지붕의 유럽풍 별장들과 파란 바다가 더 없이 사랑스러워 안데르센 동화를 연상시킬만한 그런 도시였다. 독일의 조차지여서 많은 유럽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는 청도, 아름다운 해안 도시. 청도의 기억들을 하나 둘 회상하다가 열른 마음을 가다듬고 현실을 직시한다. 2002년 9월 내가 다시 담은 이 곳은 중국 4번째로 큰 항만이자,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원유 부두와 2번째로 큰 컨테이너 부두를 가진 제2회 한중일 물류 교류회가 열리는 도시로 지금 내 눈앞에 다시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5박 6일간의 물류교류회는 물류 발전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측의 발표 및 강연과, 청도 지역의 기업 시찰 그리고 청도 시내 관광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다. 9월 4일부터 시작되



는 한중일 물류교류회는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회, 청도시 초상 촉진국, 중국 물류학회, 중국창고 협회, 일본 유통 연구사, 한국물류협회가 주관이 되고 한국 대표단 14명, 일본 대표단 34명, 중국 참가자 약 150명 정도로 구성되어 황해 호텔 회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세나라 언어로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

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은 있었지만 현재 각 국의 물류 관련 관심 주제 등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발표자와 발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발 표 자	발 표 내 용
<p>짚리 (하이얼그룹물류촉진부종합부부장) 왕위리 (청도시경제위원회부주임) 魚住泰男 (브라다기계주식회사 기술부 부장) 홍수이쿤 (중국물자창고운송총공사 총경리) 리우쉬보 (중국물자창고운송협회비서장) 후어통웨이 (청도리컨그룹 부총공정사) 예칭 (지펜스터마타이커공사북방지역경리) 후팡밍 (곤명자동화물류공정공사 총경리) 슈지엔민 (린더시아먼지계차유한공사상품부경리) 송웨이 (상해권형설비공업 유한공사 총경리) 주바오창 (랴오닝구어닝그룹 부총경리) 성찬쿤 (마지에소주과기유한공사) 짜오샤오둥 (북경이추전자기술유한공사부총경리) 리쇼우린 (중국물자상품망)</p>	<p>하이얼 현대물류기술연구 및 응용 물류구역 건설 및 3자 물류의 발전 천취회 물류 배송센터 전통적 창고운송에서 현대물류 도약에의 실현 일본통운시스템 물류 고찰 및 중일 물류발전 촉진방안 물류배송의 발전, 기업발전의 촉진 현대화 물류배송중심의 성공적 실시방안 현대물류 및 중국물류의 현대화 건설 삼단 지게차의 고층화물창고에서의 응용 및 발전 전망 모듈화 설계의 실제 응용 입체창고의 기술 특징 및 발전 전망 물류 및 바코드 식별 창고관리시스템의 중요작용 중국물류시장 및 상품분석</p>
<p>이치이치상 (아시아파렛트협회 사무국장) 히라이상 (다이후쿠 FA&DA 본부장) 권안식 (한국파렛트풀쥬상무이사) Mr. Anthony (코마츠지게차주 부장) 남용대 (한국대우중합기계 주식회사)</p>	<p>파렛트 통용시스템 연계운용의 기본개념 자동창고 및 선별시스템 사례 표준파렛트의 국제적 동향과 아시아의 대응방안 AS/RS의 아시아에서의 응용사례 한국대우지게차의 중국 물류 발전 중에서의 응용</p>
<p>구리노상 (오오꼬수송기계부장) 쨌시 (산티웨이크 분류시스템 해외영업부주임) 윤석기 (한국물류정보통신쥬상무이사) 고오노상 (후지쯔공급설계사업물류설계부과장)</p>	<p>고속 자동선별시스템 21세기를 향한 자동선별시스템의 최신 사례 한국물류정보응용 사례 및 중국 물류정보화 방안 일본정부지원항목-중국물류시스템 응용사례 및 평가</p>

♣ 대회의 구성

일 차	내	용
1일차 9/4 (수)	OPENING CEREMONY 09:00~10:00 (사회:중국/잔리)	환영사: 우칭이교수 개막축사: 청도시 부시장 宗和, 일본대표 단장 우루시자키 (大福), 한국대표 단장 서병륜(KLA), 청도시 초상축진국장 종웨이, 일본유통연구사장 마노, 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박은규
	주제강연(10:00~12:00)	4 Session (중국:3, 일본:1)
	강연(13:00~19:15) (사회:중국/이수립)	10 Session(중국:10)
2일차 9/5 (목)	강연(08:30~12:00) (사회:한국/신유균)	5 Session (중국:1, 일본:2, 한국:1, 싱가포르:1(중국))
	강연(13:30~18:00) (사회:일본/마노)	6 Session(중국:2, 일본:2, 한국:2)
	RECEPTION (18:30~20:30) (사회:한국/신유균)	참가자 전원
3일차 9/6 (금)	현장방문(07:40~18:00)	-하이얼 국제물류센터/제품자동창고(황해소재) -청도항(황해소재) -하이얼 국제물류센터/부품창고 -利群그룹 물류센터/유통물류센터
	한 중 일 물류좌담회 (20:00~22:00)	한 중 일 대표단 참석 상호토론

-Session 25개(한국3, 일본5, 중국16, 싱가포르1), 기업방문 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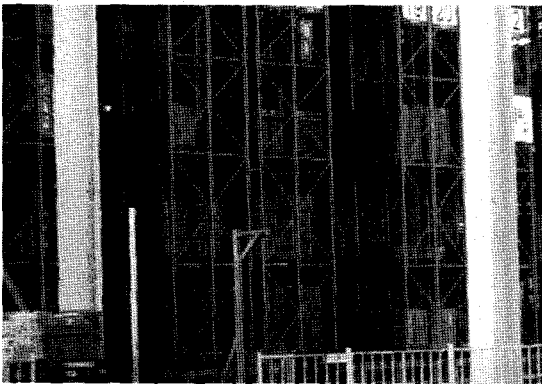
-Reception 및 좌담회

삼일째 되는 날은 기업시찰의 일환으로 하이얼 회사 국제물류센터, 부품센터, 리첸그룹물류센터, 청도항, 청도공업개발구를 방문했다. 중국 물류의 현 주소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이얼 물류센터에서는 8단 정도의 고층랙에 날개 단위로 적재되어 있는 제품들, 무인반송차, 공장내 포크리

프트 사용 현황을 참관했는데 파렛트 하나 하나에 바코드를 붙여서 컴퓨터로 관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물론 가시적 효과를 위한 물류센터라는 감이 없지않아 있었지만 중국의 일류 기업답게 규모면에서는 굉장했다. 리첸그룹 소매 체인점의 물류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역시 입출고는 날개 단위였고 트럭 운전사가 화물작업자에게 제품을 손으로 던지며 작업하는 모습이 아직은 중국이 물류 방면에 있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케 해 주었다. 시찰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이얼 그룹 물류센터

하이얼 그룹은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전 제품 제조 그룹이다. 백색 가전 부문 중국 1위 및 세계 6위, 특히 냉장고 부문에서는 월풀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다. 하이얼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격적인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DVD플레이어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중국 내수 시장을 벗어나 미국, 대만, 일본 등지로 시장을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하이얼은 미국에서 일반 냉장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이얼은 또한 지난 1월 대만의 A사에 이어 4월에는 일본의 산요와 유통판매망에 관한 제휴를 체결, 대만과 일본 시장에 잇따



인 원	3만명
생산 품목	백색가전(냉장고,세탁기)
매 출 액	9조(2001년 기준/600억인민폐)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
특기 사항	중국/미국등 선진국에 가전수출 MS극대 종합적 원가절감,품질활동 추진중

라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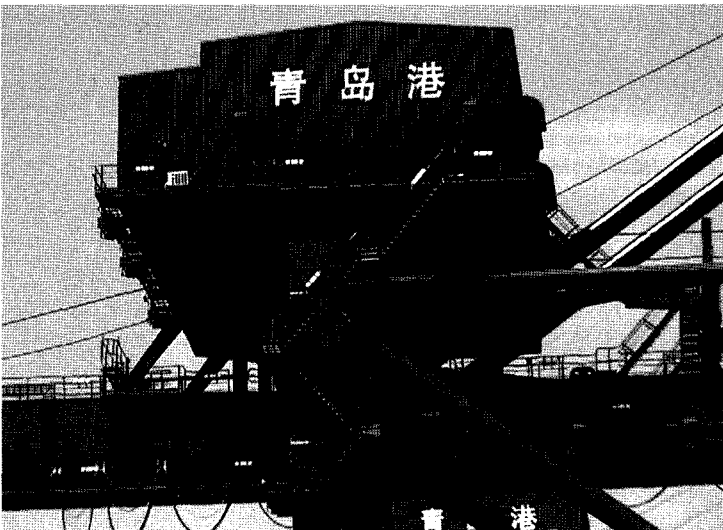
하이얼은 선난후이(先難後易), 즉 선진국 시장을 먼저 공략하여 경쟁 역량을 확보한 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으로 미국 소형 냉장고 시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는 주로 저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브랜드 파워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너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금의 수익 구조로 그렇게 과감한 M&A와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성장세가 주춤해질 때 과연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의 성공 모델이라 불리는 하이얼이 과연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분명 물류 발전의 여부와 정도가 그 갈림길의 관건이 될 것이다.

2) 리첸그룹 물류센터

리첸그룹은 지역을 넘어서고, 여러 업태를 넘어서는 종합적 성격을 띠는 주식회사이다. 70여년의 경영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소매, 배송물류, 식음료업, 호텔오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001년 리첸그룹의 매출액은 17억 인민폐(2550억원)이며 그중 판매수입은 중국 100대 기업 중 15위로 중국내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중 하나이다. 하지만 물류시스템은 아직 많이 낙후한 편이어서 구내용으로만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송용 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작업과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3) 청도항

청도항구는 산둥반도의 교주만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데 황해와 인접해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한국이 바라다 보인다. 교주만의 수역 면적은 420 제곱킬로미터이며 일년 사시



사철 얼지 않는다. 1892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총길이는 13,149미터에 달한다. 청도항구에는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컨테이너 부두, 가장 큰 원유부두, 가장 큰 광석부두, 현대화한 석탄부두 등이 있다. 이미 세계 450여개 항구와 무역왕래를 하고 있으며 황도 오일항구에는 20만 톤급, 10만톤급 원유부두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연간 수용량이 3000만톤에 이른다.

◎ 청도 개관

< 청도시 >

- 위 치 : 山東半島 남단, 동 남면은 황해, 서북면은 내륙에 연결
- 면 적 : 10,654km²(경기도 크기와 유사)
- 인 구 : 675만명(市區 220만명)
- 산업비중(농:공) : 16:84

< 주요산업 >

- 방직공업이 중심이고 고무, 화공, 전자, 기기, 기계, 야금, 건축등 업종 다양
- 靑島맥주, 브랜드, 낙화생유, 대리석등 260여개의 유명상품이 있고 수출상품도 330여종

< 외국인 투자진출 >

- '99년말 현재 허가기준 외자기업 3,143개(투자액 : 허가기준 124.8억불, 실제투자 67.6억불)이며 홍콩,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진출
- 대외개방 전략지구 설치 운영
 - 고급과학교육연구구, 공업구, 주민구, 녹화구 등 5개 기능구로 구성, 그중 첨단, 선도 산업구는 9.8km²로서 전자, 광섬유, 통신, 해양생물, 신소재 및 정밀화학기술등 첨단기술 유치
 - 黃島 경제기술개발구
 - 교주만 서안의 신개발지역을 경제기술개발지역으로 설정, 이를 위한 순환고속도로(85km)를 95년말 완공하였고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중임.
 - 주요 기술합작분야는 전자, 기기, 방직, 경공업, 고무, 플라스틱, 화공, 기계, 건축자재 등임.

< 한국과의 관계 >

- 한국기업 진출 현황
 - '99년말 현재 허가기준 1,688개 업체가 진출(총 투자액 : 허가기준 23.7억불, 실제 투자 15.4억불)
- 한국인 현황
 - 투자업체 및 상사주채원과 동 가족 약 3 만명(교포포함 10만명)
 - 유학생 약 250여명

○ 정기 항로

- 항공노선

서울/청도 : 대한항공 주 7회, 중국민항 주 7회

부산/청도 : 중국민항 주 2회

- 해운

인천/청도 : 정기 여객선, 주 2회

인천/청도 : 정기 컨테이너선, 월 3회

부산/청도 : 정기 컨테이너선, 월 3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지리적 연관성만큼이나 앞으로 함께 해결하며 공존의 이익을 모색할 부분이 많다.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를 꿈꾸는 한국은 더욱이 중국과 일본의 손을 놓고는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번 한중일 물류 교류회를 통해 각 국의 물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표 형식으로, 그리고 중국 물류의 현장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물류 교류회라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한중일 삼국의 물류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아시아의 중심점, 나아가 세계 물류의 큰 기류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한국측 참가 인원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어서 아쉬웠지만 3회, 4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물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오기를 고대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